

“핸드폰으로 한국에 전화해도 분당 2.7센트”

포닉뷰 조종현 대표 인터뷰

최근 포닉뷰 인터넷폰 설치로 전화를 절감했다는 한인들이 많다. 실제로 사업가 정준모씨는 월 50불 가까이 전화를 절감해서 두 달만에 포닉뷰 전화기 값을 대체하고도 남았다는데...

과연 포닉뷰 인터넷폰이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포닉뷰 조종현 대표를 인터뷰했다.

1. 포닉뷰 국제전화란 무엇인가?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기술을 이용한 인터넷 통신 서비스로 기존의 통신환경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차세대 통신서비스이다. 기존 전화기와 독립해서 사용할 경우엔 인터넷 전화기(139.95불→39.95불로 100불 리베이트)를 구입하면 되고, 기존 유무선 전화기를 사용할 경우엔 게이트웨이(149.95불→49.95불로 100불 리베이트)를 구입해서 이용하면 된다. 리베이트 혜택은 7월말까지이다.

2. 포닉뷰의 장점은 무엇인가?

▶한국전화를 분당 2.7센트로 저렴하게 걸 수 있다.

▶한국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무료이며 한국에서 미국으로 걸 때 시내통화(80원/3분) 요금을 적용받는다.

▶여러 개의 버튼을 누를 필요없이 지역번호와 전화번호만 누르면 된다(예:02-795-7777).

▶포닉뷰에 가입하면 휴대폰으로도 손쉽게 한국에 전화할 수 있다.

▶콜포워딩이 가능하다.

▶로컬 전화번호(ex 415, 408 ..)를 같이 부여받아 전 미주지역을 분당 3.9센트에 이용할 수 있다.

▶실시간 billing system으로 전화통화 후 즉시 웹에서 통화내역과 통화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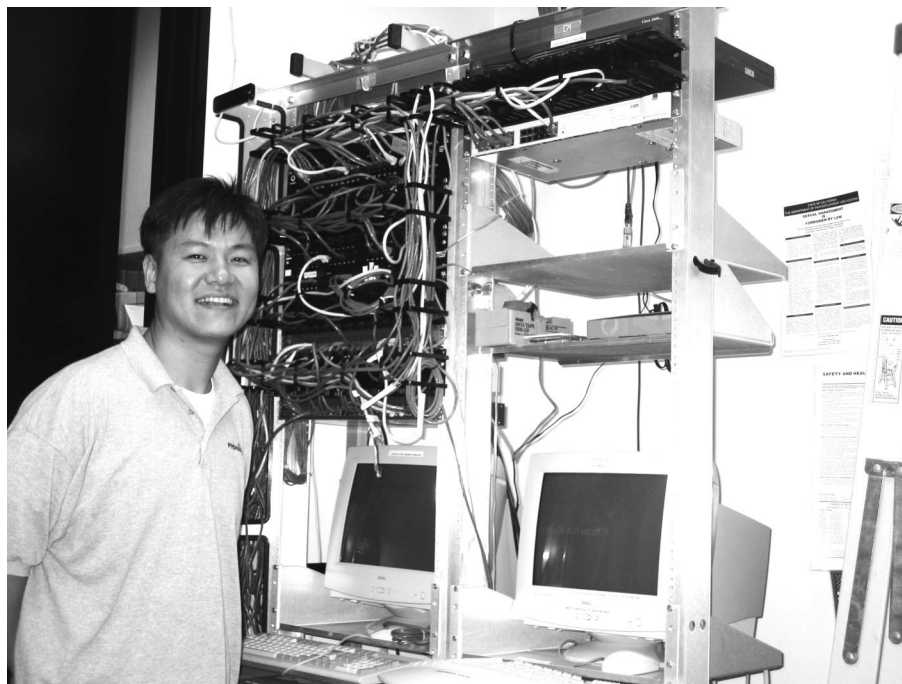
▶포닉뷰 전화 가입자간은 100% 무료 통화이다.

▶고객의 통화량과 사용 패턴에 따라 가장 유리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다.

3. 국제전화 카드와 비교할 때 요금 차이가 있는가?

▶한국에 전화할 때 가격이 싸다. 20불짜리 전화카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에 휴대폰으로 걸 때 포닉뷰는 분당 5.7센트인데 반해 일반용 전화카드는 6.3센트이며 한국에 집이나 회사로 걸 때 포닉뷰는 분당 2.7센트인데 전화카드는 분당 3.2센트이다.

▶전화카드는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시된 금액만큼 전부 사용하지 못하나 포닉뷰는 일체의



▲ 포닉뷰의 혜택을 설명하고 있는 조종현 포닉뷰 대표

7월말까지 전화기 리베이트 혜택

숨어있는 요금이 전혀 없다.

4. SBC 등 미국 전화회사의 국제전화 요금도 저렴하다. 그와 비교하면 어떤가?

물론 예전에 비해 저렴해지기는 했지만 세금 포함한 합계금액으로 보면 포닉뷰와는 비교할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걸 때 비싼 국제전화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포닉뷰를 이용하면 시내통화 요금이다.

5. 통화 품질은 믿을 만한가?

일반전화로 착각할 정도의 통화품질이 좋다. 각 딜러점에 설치한 무료통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확실한 통화품질을 경험해볼 수 있다. 포닉뷰 전화의 통화 품질은 MOS 3.9 정도로 일반전화의 통화 품질과 같은 수준이다(기존의 일반전화 통화 품질은 MOS 4.0임). (MOS:Mean Opinion Score 전화통화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평가를 평균한 수치임).

6. 포닉뷰 회사를 신뢰할 수 있는가?

포닉뷰는 한국에서 세운 한국회사가 아니다. 2002년 교포가 미국에 세운 미국회사다. 미국에도 인터넷폰 회사는 있지만 핸드폰에까지 연결하여 쓸 수 있는 인터넷폰 회사는 없다.

포닉뷰는 인터넷 전화의 선발주자로 부품의 고급화와 교환기 기술 및 인프라를 끊임없이 개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모두가 보다 편리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통신환경을 창조하여 신명난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다.

7. 포닉뷰는 미주 지역에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나?

그렇다. 미주 지역의 아시안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 특히나 중국, 일본, 한국 사람들을 주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 일본은 분당 2.7센트, 캐나나, 미국은 분당 3.9센트이다. 미주 지역에 로컬전화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나 한국을 상대로 비즈니스하는 사람, 한국에 전화할 일이 많은 사람이 포닉뷰를 이용하면 전화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

8. 한인 이용자수는 얼마나 되며 타 지역의 반응은 어떠한가?

LA와 시애틀 지역에서는 많이들 가입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LA와 시애틀 지역에 딜러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지역에도 딜러를 모집하고 있다. 늘 지식의 안부를 묻고 싶어하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 포닉뷰를 설치해 드리는 일이 많다. 포닉뷰를 한국에 설치해서 미국으로 전화하면 시내통화요금이나 국제전화요금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9. 포닉뷰 제품을 한번 이용해 볼 수 있나?

그렇다. 포닉뷰 전화기를 월 9.95불에 렌트해서 사용해 볼 수 있다. 단 55불을 deposit해야 하지만 한번 렌트해서 써보고 포닉뷰에 가입하면 두달 렌트비와 55불을 제해 드린다.

서비스는 좋은 것 같은데 전화기 구입이 망설여지는 분들, 과연 얼마나 전화비가 절감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렌트해서 사용해 보곤 만족스러워 한다. 포닉뷰 인터넷 전화기는 다음 딜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웹사이트는 www.phonicview.com이다. 포닉뷰 본사(플레즌튼) 888-459-4557, 웰빙 라이프(텔리시티 국제마켓 내) 650-757-7009, 셀컴 와이어리스(산타클라라 한국마켓 내) 408-554-6010이다.

10.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지금은 한국, 중국, 일본에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지만 포닉뷰의 인터넷서널화를 위해 베트남, 타이완 사람들에게도 판매망을 넓힐 생각이다. 앞으로 인터넷폰은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폰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다. 계속 이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송영섭 기자)

치마 속에서 활어 50마리가 뛰놀다

외국에 나갔던 호주의 한 40대 여성이 살아 있는 물고기 51마리를 자신의 치마 속에 숨겨 국내로 반입하려다 공항에서 붙잡혔다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7일 전했다.

빅토리아주 로사나에 사는 이 여성(43)은 지난 3일 싱가포르발 항공기로 멜버른 공항에 도착한 뒤 검색대를 지나다 이 여성의 허리 부분에서 계속해서 찰싹찰싹 물 튀기는 소리가 나는 것을 이상히 여긴 세관원들에게 붙잡혔다.

호주 세관의 재클린 피셔 공항소장은 이 여성이 치마 속에는 물고기 15개의 비닐 백이

숨겨져 있었다며 물고기들을 압수해 현재 어떤 종류인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피셔 소장은 “물고기들을 세관 당국이 압수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검역, 환경,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야생 동물 거래는 불법 거래자들이 동물들을 오랜 시간 동안 좁은 공간에 집어 넣어 운반함으로써 동물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야생동물 불법 반입 죄로 최고 11만 호주 달러의 벌금과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